

특별회의[청년토크 2.0]

인권 및 기후 적응 계획

2022. 10. 12.(수) 13:00-15:30

주관: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 아세안 청년 포럼(AYF)

배경

글래스고 기후합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포함한 다자간, 국가간, 지역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대표성에 대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미 있는 보장을 촉구한다. 참여는 그 자체만으로도 권리이며, 공정한 적응 및 포괄적 적응을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2021 청년토크’에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청년들은 이미 국가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에서 기후 대응에 참여할 동기, 창의성 및 열정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와 스톡홀름 환경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가적응과정에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개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청년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에티오피아, 키리바시 및 수단이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만 발견되었다.

아시아 지역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청년과 지방 정부 대표 간의 일련의 워크숍과 토론에 이어서, 지역적응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제고를 위한 일련의 조치 사항이 제시될 것이다. 이후, 행사에서는 중앙정부 대표 및 청년 대표, 그리고 국제 전문가와 함께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조치 사항을 실행하는 방법의 모색을 목표로 한다. 청년토크 세션에서는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 영화제의 영화도 상영될 예정이다.

목표

1. 지역적응계획과정에서 청년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2. 청년, 정부 대표 및 전문가를 연계하여 지역적응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사항 논의를 위한 공간 제공

주요 논의사항

1. 기존 지역적응계획과정에서의 학습 - 청년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치 사항은?
2. 지역적응계획과정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란? 이를 위한 기존의 방법은?

